

韓重, 韓電전액出資社로 轉換

發電設備製造業 合理化대상으로 指定

정부는 발전설비 專門메이커인 韓國重工業의 경영개선을위해 韓重을 韓電의 全額出資社로 전환시키는 한편 發電設備製造業을 합리화대상 산업으로 指定, 租稅減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29일 産業政策審議會를 거쳐 확정된 발전설비 제조업의 産業合理化基準에 따르면 韓重을 韓電의 전액출자회사로 전환키로 하고 산업은행이 출자한 1천7백80억원과 외환은행의 출자분 8백20억원을 韓電이 모두 인수키로 했다.

또 韓重의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韓電은 이미 출자한 2백억원에 1백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오는 85년까지 매년 1백억원씩 3백억원을 발전설비 기자재의 기술개발비로 출자, 자본금을 현재의 4천10억원에서 4천4백10억원

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발전설비제조업을 合理化對象産業으로 지정,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동안 韓重이 발전소건설 지연에따른 지체보상금 2백50억원을 면제조치하고 오는 86년까지는 지체보상금의 上限線을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韓電이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소유주식 인수에 따른 취득세 42억원과 산은 및 외환은행의 주식거래세 13억원등 55억원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발전소 건설 발주방식도 바꾸어 신규발전소 건설때부터 기기제작 및 설치공사의 主契約者로 참여토록 하고 이미 발주된 原電 9·10호기의 설치공사도 말도 못했다.

放射性廢棄物對策委 發足 委員長에 林瑤圭委員

原子力發電所에서 排出되는 방사성폐기물의 處理·處분에 관한 政府의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에 對策委員會가 설치되어 제1차 회의가 6월20일 科技處 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對策委 委員長에는 林瑤圭 原子力常任委員이 選任되었고 委員에

는 韓電, 韓國에너지研究所, 韓國電力技術(株), 動力資源研究所 등에서 選출된 10名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날 會議에서는 1983년말까지 對策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討議되었고, 提起된 여러문제들을 좀 더 具體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實務作業班을 구성할 것에 合議하여 앞으로는 제반문제가 實務班을 거쳐 委員會로 回附된 다음 原子力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에 관한 對策이 確立될 것이다.

가봉 우라늄탐사 회의 하반기 시추물량 확정

제6차 가봉 우라늄공동탐사운영회의가 6월29일과 30일 이틀동안 韓電側 代表와 프랑스의 코제마社 및 가봉정부의 代表들이 참석한 가운데 韓電 本사 상황실에서 열려 지난 3월1일부터 5월1일까지 탐사한 시추결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탐사계획을 확정지었다.

올 상반기 시추결과(5,239.10m 22개공)분석에서는 82년 하반기 시추탐사시 우라늄鑛化帶가 발견된 Suly 8 및 14번공 주위에 품위 0.2%eU 이상의 광화대 분포지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탐사계획을 시추물량 최소 3,800m(약 20개공)로 확정하였는데, 1단계 시추는 시추공간격 40m, 3개추선시추 12개공(2,060m), 2단계 시추는 1단계 시추결과에 따라 잔여물량에 대해 임의 시추할 예정이다.

WH社 머린社長 來韓 古里·靈光등을 視察

美國 웨스팅하우스社의 토마스 머린社長이 8월7일 부터 13일까지 일주일동안 우리나라를 訪問하였다.

웨스팅하우스社의 항공 우주사업과 방위산업을 비롯, 原子力發電設備과 로봇등 電子技術産業

ANS韓國支部 뉴우스

支部第1次定期總會

—會則등을 審議通過—



지난 4월 26일 創立總會를 거쳐 發足된 ANS韓國支部의 第1次 定期總會가 6월 29日 100여명의 國內外 原子力分野 關係人士들이 參席한 가운데 여의도의 韓國電力公社 南서울電力管理本部 9층 강당에서 開催되었다. <사진>

ANS韓國支部는 5월 9日 來韓했던 ANS會長(當時 副會長)인 Levenson 박사로 부터 이미 正式으로 支部設立을 認准받았으며 5월 18日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는 6명의 分科委員長을 選出하고 金榮俊 原子力産業會議 會長과 安世熙 原子力學會 會長을 顧問으로 委囑한 바 있다.

總會席上에서는 鄭根謨 박사(支部書記)의 경과보고와 金鍾珠韓國支部會長의 人事말이 있는 다음 李正五 科技處長官의 演說文(別項全文참조)을 林珞圭 原子力委員會 常任委員이 代讀하였으며 韓國에너지研究所 李昌健박사의 ANS總會參席

報告가 있었다.

總會는 이날의 案件인 會則을 通過시키고 運營委員會 結果報告를 들은 다음 閉會했다.

한편 이날 總會가 끝난 다음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와 웨스팅하우스韓國支社가 마련한 리셉션이 會議場옆에 마련된 자리에서 베풀어졌다.

● 鄭根謨 博士, ANS本部 國際委·委員으로 選任

ANS 韓國支部의 鄭根謨 博士는 지난 6月 ANS本部의 國際委員會(International Committee) 委員에 再任命되었으며 支部委員會(Local Section Committee) 委員으로도 委囑되었다. 鄭博士는 上記委員會 活動을 통하여 韓國支部와 ANS本部와의 圓滑한 協力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을 총괄하는 에너지기술 담당 책임자인 머린社長은 訪韓期間中 클로비스 오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사장을 대동하고 현재 웨스팅하우스社가 참여하고 있는영

광原子力發電所(7·8號機)의 건설현장과 古里原子力發電所 및 韓國重工業의 창원공장, 구미공업단지등을 시찰함과 동시에 정부의 고위관료도 예방하였다.

地震解析에 관한 연수 原子力研修院서 개최

韓國에너지研究所의 原子力 研修院은 지난 6월 21일 부터 7월 1

일까지 10일간 미국 버클리 대학교수인 J. Penzien 박사를 초청, 原子力發電所 및 耐震구조물의 安全解析에 있어 당면과제인 地震解析에 관한 연수과정을 개최 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地震學基礎, 地震分析技法, 지진의 工學的解析方法, 부지 및 구조물에 미치는 지진영향분석등 지진에 관련된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됨으로써 우리나라 原子力發電所와 내진구조물의 耐震設計 및 安全解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공업(주) 등 原子力産業體와 엔지니어링회사 및 연구기관에서 많이 참여하였다.

原電要員 100名 프랑스에 派遣키로

科學技術處는 原子力要員의 양성을 위하여 84년부터 88년 까지 100명의 원자력 기술훈련생을 프랑스에 파견키로 했다.

韓·佛원자력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開催된 韓·佛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原子力要員의 훈련 및 原子力發電所運轉 관련기술정보협력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原電安全 및 운전분야에 관한 기술연수를위해 훈련생을 매년 20명씩 5년동안프랑스에 파견하고 ▲두나라는 원자력발전소 고장정보및 표준화에 관한 자료의 정기교환 ▲韓國의 원자력관련훈련 지원을 위한 프랑

스 원자력전문가의 한국 파견 ▲원자력관련 기술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원자력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원자력발전소 비상대책 및 고속증식소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협력키로 했다.

原電 7號機 蒸氣發生器 6월27일 現場에 도착

300톤이넘는 原子力7號機의 蒸氣發生器가 6월24일 昌原에서 선적되어 4일 동안의 해상운송작업에 의해 27일 靈光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 증기발생기는 주계약자인 美國의 WH社와 韓國重工業간의 公계약에 의거, 증기발생기의 로우워(Lower)부분을 WH社가 제공하고 韓重이 이를 國內에서 조립가공한 것으로 1세트가 제작완료되어 출하된 것이다.

이 증기발생기가 영광에 운반되기까지는 美國원자력건설 물자취급 규칙에 의거 충분한 검사와 점검, 수송루트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완벽한 수송계획 아래, 수평조절이 가능한 3천톤급 부선 1척과 하이드로시스템을 갖춘 500톤급 트랜스포터, 100톤급 트랙터, 그밖의 크레인등 수많은 장비가 동원되었다.

83년도 夏季學術會議 鄭根謨박사의 特別講演

대한전기학회는 7월22~23일 이틀간 慶南大에서 83년도 하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電氣器機·

計測制御시스템·放電·高電壓工學·電力系統·컴퓨터등 9개분야 별로 75편의 研究論文이 발표됐다.

또 이 회의에서는 「세계의 에너지資源과 原子力開發」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社長 鄭根謨박사의 「原子力發電所의 標準化」등 3개테마의 특별강연도 있었다.

롯데등 12개社서 小水力發電을 추진

政府의 水力資源 活用을 위한 小水力發電의 지원시책에 따라 롯데등 12개사가 13개 지점을 대상으로한 小水力發電所 建設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全國에는 多目的댐 및 發電단일목적댐등 모두 27개 지점(총시설용량 3만4천KW)에서 水力發電所建設이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發電施設容量 3천KW이하인 小水力發電所는 지난 4월 허가된 潤化 實業의 井邑소수력을 포함해 13개지점 12개사가 소수력발전조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韓電은 내년부터 이틀 민간업체에서 生産된 電力을 KW당 35원64전에 전량매입, 販路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82년까지 全國 42개 지점에 대한 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를 끝낸데 이어 83~85년까지 매년 약50개 지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유망지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의 小水力發電所 建設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